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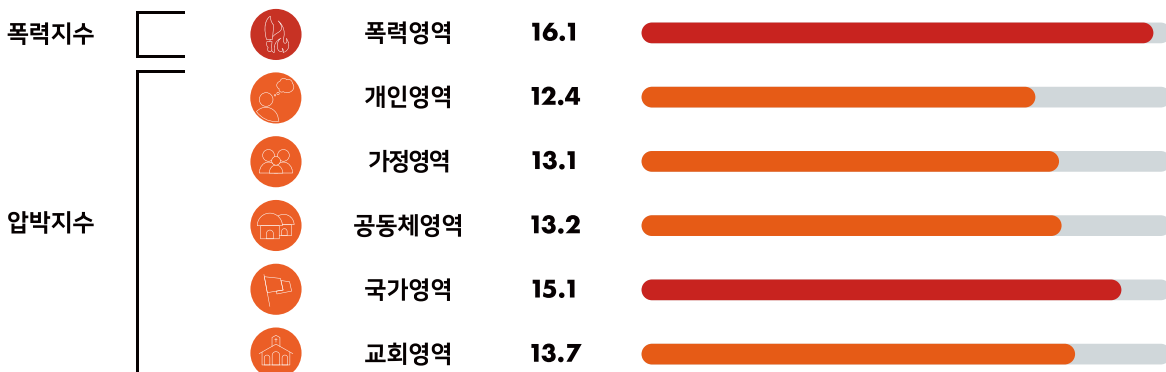
12위

인도 (INDIA)



© Pexels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인도의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힌두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점점 심해지는 박해를 겪고 있다. 기독교인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식의 민족주의적인 주장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차별을 당하고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박해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힌두교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12개 주에는 반()개종법이 존재하며, 이는 법이 기독교 소수자를 보호하기보다 기소하는 데 점점 더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5년에는 Jose Pappachan 목사사와 그의 아내 Sheeja Pappachan이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갈수록 엄격해지는 반()개종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고, 벌금형과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UCA News, 2025년 1월 23일).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폭도들을 동원해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며, 살해한다. 마니푸르주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부분적으로 계획한 분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극심한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The Hindu, 2025년 8월 20일). 해외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까지 막히면서, 인도 교회는 폭력과 경제적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인도 (INDIA)

국가 정보

지도자 :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인구 : 1,454,607,000명

기독교인 수 : 2,326,000명¹

주요종교 : 힌두교

정부형태 : 연방 의회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72,326,000	5.0
힌두교	1,065,348,000	73.2
무슬림	199,536,000	13.7
기타	117,397,000	8.1
	합계	100%

출처²

인도 헌법은 1947년 인도가 독립 국가가 되었을 당시 존재하던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들 사이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도를 세속 국가로 선언했다. 힌두 민족주의(Hindutva) 운동은 이를 바꾸어 힌두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려 하고 있다. 2002년 구자라트에서 일어난 포그롬 동안 힌두 극단주의자들에게 살해된 수백 명의 무슬림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나렌드라 모디는 2014년 인도의 총리로 선출되었고, 이후 그의 BJP 정당은 두 차례의 선거에서 추가로 승리했다. 모디가 총리가 된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적 공격의 연간 보고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인도복음주의협의회 종교자유위원회(EFIRLC)는 2024년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이 전년 대비 6.5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다(Christianity Today, 2025년 3월 11일). 2024년 모디의 재선 격차는 더

좁아졌지만, 이는 연방과 주 차원 모두에서 가능해진 기독교인 박해의 거세지는 흐름을 막지 못했다.

인도의 종교자유법, 또는 “강제 개종 반대” 법은 종교 개종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주 차원의 법률이다. 실제로 이 법들은 힌두교도들이 오직 기독교인들의 압박이나 유인 때문에 개종한다는 힌두 민족주의 서사를 법제화함으로써, 힌두교도의 개종으로 이어지거나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사실상 범죄화한다. 반()개종법은 12개 주에 존재한다(괄호 안은 도입 연도): 오디샤(1967), 마디아프라데시(1968), 아루나찰프라데시(1978), 차티스가르(2000), 구자라트(2003), 히마찰프라데시(2006, 2019년 개정), 자르칸드(2017), 우타라칸드(2018), 우타르프라데시(2020, 2024년 강화), 하리아나(2022), 카르나타카(2022), 라자스탄(2025). 이러한 법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전 반적인 흐름이다.

현재 세계 4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 된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Deloitte, 2025년 8월 5일)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라는 지위는, 인도가 소수자 권리에 관한 국제적 압력에 맞서고 종교 민족주의를 촉진하는 데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다. 인도 정부는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에 대해 점점 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해서는 더 큰 자립을 촉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BBC, 2025년 8월 27일).

¹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종교적 민족주의

힌두 민족주의는 박해의 지배적인 원인이며, 이 운동의 추진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커졌다. 이들은 인도는 힌두교의 것이며 다른 종교들은 이 나라에 이질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가장 큰 두 소수 집단인 무슬림과 기독교인에 대한 공포와 폭력의 문화를 만들어 낸다. 특히 기독교인 박해는 효과적인 정치 전략으로 여겨지는데, 기독교는 외부의 위협이자 내부의 위협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만들어 낸 경제적 불안은 기독교 서방과 연관되고, 서방의 지원을 받는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내부적 위협으로도 제시된다.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 종교적 민족주의와 결합된 형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인도가 필요로 하는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소셜미디어 통제, 선동적 연설, 정부 정책과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한 입막음, 그리고 이슬람교와 기독교 같은 '이질적' 종교들에 대한 선전은 점점 강해지는 독재적 성향을 보여 주는 징후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민족-종교적 적대감-종교적 민족주의와 결합된 형태

차티스가르, 자르칸드, 오디샤, 남부 마디아프라데시, 남부 구자라트, 아루나찰프라데시, 아삼, 트리푸라, 나갈랜드, 마니푸르 주에는 부족 사회가 형성된 지역들이 있다. 라슈트리야 스와암세박 상(RSS)과 같은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은 이러한 부족 사회에 성공적으로 침투해, 그 지역들에 존재하는 기독교 공동체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들었다.

씨족 억압

이 현상은 특히 인도 북부 일부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른바 자트 벨트에서는 카프 판차야트(씨족 법정)가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국가의 법체계와는 별개로 기능하며, 국가 역시 종종 이를 묵인한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인도에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특별히 집중되는 특정 지역은 없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BJP가 권력을 쥐고 있는 주들이지만, 선거로 인해 이는 5년마다 달라질 수 있다. 야당이 통치하는 경우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수반하는 '온건한' 힌두트바가 추진된다. 힌두 극단주의 단체들은 외딴 마을들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사무소를 세워 두었다. 박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이지만, 중동부 여러 주들과 마니푸르주에서도 많은 사건이 발생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기독교 개종자

힌두교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인도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들 기독교인은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하며, 힌두교로 돌아가라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힌두교도들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 역시, 특히 반() 개종법을 통해 표적이 되며, 이는 침례교회, 복음주의 교회, 오순절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로마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계열 교회와 같은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관용 문화는 이들의 삶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인도의 기독교인 여성들은 성별, 카스트, 신앙이 중첩되면서 복합적인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마니푸르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 강간, 고문, 살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찰은 종종 방관자로 있거나 이에 공모하는 행위자로 작용한다. 인도 전역에서 개종자들, 특히 힌두교 또는 달리트 배경 출신의 개종자들은 힌두교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으며, 가정폭력, 가택 연금, 강제결혼 또는 강제이혼, 자녀 양육권 상실을 겪는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아내와 딸들은 혼자 있을 때 자주 공격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 산(酸) 공격, 잔혹한 구타는 가족에게 수치를 주고 여성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공동체 자원 접근 차단
- 자녀 양육권 박탈
- 강제이혼
- 강제결혼
- 강제로 집에서 쫓겨남(추방)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인도의 기독교인 남성들은 특히 힌두 극단주의 단체들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 가장이자 교회 지도자로서 이들은 구타, 군중 폭력, 고문, 살해의 표적이 된다. 목회자들은 특히 취약하며, 그들의 사역은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일들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이들이 허위 혐의, 장기 구금, 괴롭힘에 직면해 있다.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의 근절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폭도들은 주일예배를 공격하고 있다. 투옥이나 경제적 보이콧은 가족들을 빈곤에 빠뜨리고, 남성들은 강제 개종을 시도했다거나 힌두 신들을 모욕했다는 비난으로 낙인찍힌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공동체 자원 접근 차단
- 상속권·재산권 박탈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벌금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허위 혐의
- 강제로 집에서 쫓겨남(추방)
- 정부에 의한 투옥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여행 금지 및 이동 제한
- 폭력 - 살해 / 신체적 / 심리적 / 언어적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12	84
2025	11	84
2024	11	83
2023	11	82
2022	10	82

반올림한 점수는 이전 보고 기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인 점수 산정은 마니푸르주의 상황이 다소 안정되는 한편, 전국적으로 개별 기독교인들과 가정에 대한 압박이 커졌음을 보여 준다. 마니푸르주에서는 여전히 잔혹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집을 떠나야 했던 기독교인의 수가 줄었고, 이것이 폭력 점수가 낮아진 주된 이

유였다. 개인영역과 가정영역 점수가 상승한 것은 힌두트바 운동이 만들어 낸 더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 곧 기독교인들을 국가와 공동체를 배신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조용히 신앙을 실천하는 것조차 위협하게 만들며, 특히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는 점점 더 개종 시도로 묘사될 수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10월:** 텔랑가나주에서 열린 한 교회 청년예배가 RSS와 BJP 지도자들에 의해 중단되었고, 이어 이들은 청년들을 폭행하고 그들의 휴대전화, 의자, 음향 장비를 부숴댔다. 목사가 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2024년 11월 7일:** 마니푸르주에서 한 기독교인 여성이 메이테이 무장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공격 과정에서 고문당하고 살해된 뒤 시신이 훼손되었다(그리고 강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공격에는 가옥 방화와 35가정의 강제이주도 포함되었다(NDTV, 2024년 11월 14일).
- **2025년 1월:**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한 목사와 그의 아내가 달리트 공동체 가운데서 사역한 뒤, 해당 주의 반(反)개종법에 따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 **2025년 6월:** 자르칸드주의 한 마을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중 일부가 개종했던 한 여성이 같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가족은 일주일만 지나서야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된 기독교인 수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구금된 기독교인 수	강간 및/또는 성적 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수
2026	16	82	1,622	22
2025	20	459	1,629	13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이제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전도나 개종 시도로 묘사될 수 있다.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이제 개종자들에게만 위험한 일이 아니라, 북동부의 두세 개 주를 제외하면 모든 기독교인에게 위험한 일이 되었다. 헌법상 보호되는 교회 예배와 같은 활동조차 힌두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강제 개종에 대한 허위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혐의로 체포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는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 영역

청소년사법법은 비(非)힌두교 부모가 힌두교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실제로는 여전히 입양이 극히 어렵다.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기독교인 아동들은 요가, 힌두 문학, 힌두 신화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힌두교적 요소들에 강제로 참여해야 한다. 야외 세례식은 이제 세례를 집행하는 목회자와 세례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지나치게 위험한 일로 여겨진다.

지역사회 영역

지난 5년 동안 힌두 급진주의 단체들과 지역사회 당국에 의한 기독교인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 목적은 모든 형태의 전도를 막는 데 있다. 특히 부활절, 성탄절, 새해 등 주요 기독교 절기와 관련된 지역사회 행사들을 중심으로 괴롭힘, 위협, 사회적 차별이 증가했다. 가르 와프시(Ghar Wapsi, '귀향') 재개종 운동이 성공

하는 데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압력이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영역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反)개종법이 1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해외에서 자금을 받는 기독교 단체들은 전도나 옹호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외국기여금규제법에 의해 항상 제약을 받아 왔다. 해외 자금 수령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영역에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었다. 달리트 공동체 출신 기독교인들은 힌두교도, 시크교도, 불교도인 달리트들에게 제공되는 적극적 우대조치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차별을 겪고 있다. 언론은, 특히 인도 방언 매체일수록, 대체로 기독교인에 대해 매우 편향적이며 농촌 지역에서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이다.

교회 영역

국가는 기독교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많은 제한을 부과해 왔다(예: 해외 자금 지원, 해외 선교사 초청, 등록의 어려움, 반(反)개종법 등). 지방 당국과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의 인터넷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방문하는 관광객들조차 설교나 개종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교회 소음에 대한 민원은 무엇보다도 지역 내 긴장을 조성하고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함께 모일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인도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4.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인도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살해된다 (ICCPR 제6조)
-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은 신앙 때문에 강간과 성적 학대를 당한다 (ICCPR 제7조)
- 기독교인들은 공격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며, 타인을 강제로 개종시켰다는 부당한 비난을 받는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은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성 발언과 비방 캠페인의 피해자가 된다 (ICCPR 제20조)
- 기독교인들의 평화적인 종교 집회는 폭도들과 공격에 의해 방해받으며, 이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ICCPR 제21조)
- 기독교인 달리트들은 신앙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우대조치에서 배제된다 (ICCPR 제26조 및 ICESCR 제11조)

인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무슬림 소수 집단은 기독교 소수 집단보다 훨씬 규모가 크며, 오랫동안 폭력적인 박해를 받아 왔다.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관련된 사건은 2024년에 74% 증가했으며, 그 대부분은 무슬림을 겨냥한 것이었다(BBC, 2025년 2월 11일). 무슬림들 역시 강제 개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우타르프라데시에서 무슬림 성직자 Kalim Siddiqui와 다른 11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그 한 예이다(USCIRF, 2025년 3월).



오픈도어의 인도 사역

인도에서 오픈도어 현지 협력자들의 사역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 성경 보급
- 훈련: 박해 대비를 포함한 전인적 훈련
- 사회경제적 개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생계 지원 및 지역사회 개발
- 긴급 지원: 박해 피해자 지원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